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31,
이사야 7장, 메시아 주제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사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마브 윌슨 박사(Dr. Marv Wilson)입니다. 31과, 이사야 7장, 메시아 주제입니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아버지, 오늘은 당신이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의 삶과 봄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한 해의 계절처럼 변함없이 변함없이 의지하실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식시장이나 사람의 감정처럼 우리 주변의 다른 것들이 무너지거나 오르락내리락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풀리게 될 때, 당신이 반석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이미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떠낸 반석, 즉 아브라함, 사라, 베드로, 사도들로 불린 그 반석,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퉁잇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의 확실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학생과 함께 당신을 공부할 때 이 시간을 안내해 주십시오. 각각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매일 더 많이 당신께 헌신하고 당신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저는 7장의 유명한 임마누엘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심판, 즉 책의 전반부인 1-39장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될 7장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자 아하스 왕에게 소망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장에서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아이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이 그 구절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를 통해 먼 희망, 더 깊은 의미, 충만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7장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52년 RSV가 나왔을 때 이 구절은 젊은 여성인 Alma를 번역했고, James 왕은 약 350년 동안 Virgin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이 아기를 번역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앨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7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의 예언 사역 초기에 유다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때 왕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고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왕좌에 있었을 때 두 왕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브라임 왕,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잔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르잔은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연대는 대략 735년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하스의 연대가 735-715년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쪽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바로 앞에 있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평선 위의 거대괴수는 아시리아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곱 번째 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시리아와 북쪽 왕국은 실제로 앗수르에 맞서 동맹을 맺었고, 그들은 남쪽 왕국이 세 번째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아하스를 왕위에서 몰아내는 일이 될지라도 아하스와 유다를 그들의 연합에

참여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6절을 읽어보면 다브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표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동쪽에서 와서 꼭두각시 왕의 대리자가 될 다른 왕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물론 아하스는 연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맹국은 시리아와 아람(시리아는 ARAM으로 알려져 있음)입니다.

여기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핵심 도시인 다메섹은 북쪽 왕국 전체, 즉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현재 남쪽에 있는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 연합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제압하기 위해 그를 향해 진군해 오려고 했습니다. 1절에서, 남쪽 왕국이 에브라임과 아람 연합, 시리아, 그리고 북쪽 왕국으로부터 임박한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감정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긴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네 아들 스알예숩과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에게는 이미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하스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의심은 이것이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내, 그를 낳은 스알예숩,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혼할 것이며, 그가 재혼할 앨마는 이 이름과 연결된 마에르살랄하쉬바스라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과 동행합니다. 그는 침략이 있을 경우 히스기야의 물 터널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 공급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단, 히스기야는

이때 물 터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터널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원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로 나갔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사야는 베가와 르신을 연기 나는 두 개의 그루터기로 묘사합니다. 즉, 그것은 나무 그루터기 두 개, 횃불, 숲에서 타고 있는 장작 조각들이었다.

리빙 바이블(Living Bible)의 원본 번역은 그 표현을 사용할 때 그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현대적인 의미를 제공합니다. 즉,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실상 무력합니다.

그들은 단지 숲에서 그루터기를 피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베가와 르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북방 두 왕의 연합으로 유다는 침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너무 흩어져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사마리아는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의 의미가 인종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잡종이었고 혼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엄격하고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때부터 721년까지 앗시리아가 멸망한 후 북쪽 왕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특히 670-669년경에 해당하는 에사르핫돈 시대까지 뒤따른 통치자들이 많은 재정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온 민족들. 그들은 앗수르 제국의 가장 먼 곳에서 와서 북쪽 왕국 에브라임의 사마리아에 정착했습니다.

북쪽 열 지파가 추방되면서 비이스라엘인 이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큰 규모로 일어났는데,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었던 디글랏-빌레셀 3세 치하에서 시작하여 내가 말했듯이 에사르핫돈 치하에서 669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말하면 북왕국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분열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서 산산조각이났습니다. 이제 아하스에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정치적 동맹을 따르지 말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6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박국 2-4장의 에무나(Emunah)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Am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동일한 단어, 즉 진리를 뜻하는 Emet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고하고 견고하고 꾸준하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깊이 파고들고 신뢰하십시오.

이사야는 만일 너희가 너희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로 타아미누(lo ta'aminu)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히필인데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무지 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Lo ta'aminu, 여기서 그는 niphal을 사용하고 niphal은 일반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여기서는 굳건히 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굳건히 서거나 수동적으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도 없고, 확고한 마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집착도 없다면 당신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 단어 confide는 라틴어 fid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당신의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로 타아미누, 로 타아미누. 만일 당신이 확고히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 굳건히 서지 못할 것이며, 확고히 자리잡지 못할 것이며,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에게 믿음을 갖고 신학이라는 허름한 것을 신뢰하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전 세대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아하스여, 당신은 여기 남쪽 왕국에서 다윗의 왕위에 오른 마지막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하스? 그것은 실제로 실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스는 신학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그 앗수르의 위협, 그 세력, 인간이 걱정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증하는 표징을 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블랑쉬 카드를 주겠습니다. 백지 수표를 주겠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또 메리즘, 메리즘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연구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보았습니다.

포함된 모든 것에 대한 진술을 만들기 위해 반의어나 극단을 다루는 곳에서는 great, and height가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선과 악, 이것들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메리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은 그에게 표징을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시리아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큰 사람과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은 이 구절의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 때에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주의 종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에게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아하스도 예루살렘 제1국립은행으로 가서 성전 뒤편 방에 보관되어 있던 은과 금을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물들을 가져다가 이것을 마타나(matana), 즉 앗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앗수르 왕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레진을 죽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음으로 아하스가 앗수르 왕과 회담을 갖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앗수르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앗수르가 어떤 친구가 될 것인지는 특히 이 임마누엘 구절의 17절부터 끝까지, 18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구절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졌고 18~25절에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30년 후인 701년에는 앗수르가 유다에 들어와 그 땅을 유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들과 거의 같은 것으로 묘사됩니다(18절). 땅 속, 계곡 속, 틈새 속, 바위 속, 가시덤불 속, 물웅덩이 속으로 와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강 건너편에서 오는 삭도 같이 묘사된 앗수르 왕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와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면도칼처럼 할 세 가지 종류의 면도를 주목하세요. 머리를 면도하고, 음모를 면도하고, 수염을 면도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됩니다.

깨끗한 청소. 산헤립 701년 치하에서 일어날 아시리아의 공격을 상징하며, 유다의 46개 야생 도시. 그리고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산헤립의 연대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는 그곳에서 새장 속의 새처럼 총에 맞았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르신과 베가 동맹을 두려워하여 그와 동맹을 맺고 존재를 가져오면서 일시적인 구원을 받은 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었을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였다고 12절은 말합니다.

그는 맹세나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여, 이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영어로 번역할 때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수인가요, 아니면 복수인가요? 여기에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너, 다윗의 집이여. 혹은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이시리라.

당신, 복수형. 이 복수형은 다윗의 집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에게 표징을 주시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에게 이 징조가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앨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계속해서 땅이 황폐화되기 몇 년 밖에 안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설명은 일반적인 농작물을 먹는 것이 아니지만 응유와 꿀은 우리에게 매우 간단한 식단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군대를 압도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미쉬나의 피르키 아보트(Pirki Avot)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계명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약 721년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두 왕이 그때쯤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721년에는 북쪽 왕국이 앗수르에게 함락되고 다마스쿠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특히 집중하고 싶은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 Alma, ALMA(때때로 Alma라고 발음함)에 대해 자주 논의되는 질문은 처녀자리 온타타입니까? 여기서는 손길이 닿지 않은 처녀라는 뜻의 라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앨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도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언어학적 문제를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고대에는 어떤

언어에서도 그 자체로 처녀자리 온타타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앨마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모두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처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어에는 처녀자리 온타타(Virgointacta)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Betula, BETHULAH, Betulah라는 단어가 미시간에서 흥미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 주 베툴라(Betula)와 미시간 주 앨마(Alma)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King James)인 베툴라(Betula)는 종종 처녀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처녀인 앨마를 번역했습니다. RSV는 1952년에 등장했고 젊은 여성이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새로운 번역판이 등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영어권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에 도전하게 된 소위 신학적 논쟁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미혼 여성을 의미하는 베툴라(Betula)나 알마(Alma) 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소위 성모 마리아에 대해 사용된 파르테노스(Parthenos)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칠십인역에서는 파르테노스가 앨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대 근동 언어의 사전 편찬에서 그 자체로 처녀자리 온타타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lma는 특정 우가리트어 텍스트에서 사용되며, 나의 멘토 Cyrus Gordon이 쓴 우가릿어 문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미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Betula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텍스트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툴라(Betula)라고 불립니다.

요엘 1장 8절에서는 결혼한 여인과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살해된 여인에게 브둘라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베툴라(Betula)라고 불립니다. 분명히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제 에스더서 2장에는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에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4절에 따르면 그와 함께 궁전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보냈고, 베툴롯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17절과 19절에서는 베툴라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의 첩인 그의 하렘 중에서 여자들은 베툴라라고 불립니다. 파르테노스의 경우 파르테노스는 때때로 처녀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읽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70인역의 내용이 종종 매우 교훈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문맥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다.

디나.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간당한 이 디나는 칠십인역에서 두 번이나 파르테노스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34:3, 4. 그래서 그녀에 대한 언급은 그녀가 강간당했다는 것이고, 그녀는 파르테노스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파르테노스는 강간 피해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ma, Betula, Parthenos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을 다른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처녀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명확하게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특정 설정 문구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 130에서. 이 정해진 문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베툴라, 알마, 파르테노스형 단어의 성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문구들이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Rebekah Black이 오늘 너무 컸으니까 Rebekah를 선택하겠습니다. 레베카는 마음속에 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16에서는 리브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16절에서 베툴라(Betula)로 묘사됩니다.

16절에서 베툴라의 용법에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중복되거나 확실히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43절에서 앨마, ALMAH로 묘사됩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

또는 14절과 28절의 나라라(Na'arah). 그녀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녀성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그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러면 신약성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나는 확실히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특정 단어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마태복음은 기원전 1700년의 함무라비처럼 창세기 이야기나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처럼 요셉과 결혼한 이 젊은 여성의 성적 지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싶다면 한정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마태는 세 가지를 던졌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모이기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이 세 가지 한정자를 합치면 Matthew가 Parthenos로 묘사한 Mary는 실제로 Wirgo Intacta입니다. 이러한 한정자는 그녀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처녀였다는 것을 아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인 Alma, Betula, Naara, Parthenos는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콥트 문학에서 대략 콥트어 단어의 20%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외래어입니다. 그리고 초기 콥트어 문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 반세기 동안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둘을 복수형 파르테논(Parthenon)이라고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요점은 두 명의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당시 이사야가 한 아이를 낳은 사건이었지만 여기서는 처녀에 대한 이중 언급이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자는 아마도 이사야의 두 번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아처럼 그녀를 낳은 첫 번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의 한 여인에 대한 지역적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 8장에서처럼 그녀는 여선지자로 묘사되는 마헬살라하스바스를 낳은 사람이라고 묘사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여선지자에게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태가 이 특별한 구절을 사용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문맥에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면 이사야의 아이의 탄생인 것처럼 보이고, 이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이 이사야 자신의 아이라고 가정합니다. 얘야, 이것은 단지 앞으로 올 더 큰 임마누엘에 대한 예표일 뿐이다. 후자는 참으로 동정녀 탄생이다. 그런데 가톨릭교회에는 마리아에 관한 교리로 발전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글쎄, 당신의 특정 종교 전통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톨릭 가르침에서는 당신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가톨릭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결점 개념을 고수합니다. . 즉, 마리아는 어머니의 태중에 원죄의 얼룩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도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개신교도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언급된 예수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며 사촌이 아니거나 가톨릭 전통처럼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은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950년에 선포되었는데,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천국으로 승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Mary에 대해 훨씬 더 나중에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이는 섭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젊은 여자에게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도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섭리적으로는 유다가 두려워하던 북쪽의 적들이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에게는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단기적인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두 번째이자 더 깊은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미.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면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사야 당시와 아하스에게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하스에게 표징이 될 즉각적인 탄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하스에게 주신 표적이 단지 7~8세기 후에 오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단일하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최종 성취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된 예수의 탄생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제가 이 특정 구절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예? 응.

가톨릭 가르침은 원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원죄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달되고 유전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이 말했듯이 첫 번째 아담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아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인류의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유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상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든 죄 많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어머니의 자궁을 보호하셔서 그녀가 실제로 마리아에 대한 순전한 잉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성경 주석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고에서 교회의 쌍둥이 기둥은 성경과 전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관리자이자 해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추가적인 통찰은 마리아를 보는 전체적인 방식의 일부입니다. 개신교인들은 평균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성경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응? 나는 아마도 육체가 악의 근원이거나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보다 열등한 고대 신플라톤주의 세계의 세계에서 그녀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의 세계에서, 이 눈물의 장막에서, 부패 가능성과 다른 것들로부터 한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대체로 그 뒤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950년에 교리로 선언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고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선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신교는 1517년부터 신자의 제사장직과 성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당시 실제로 자격이 없었던 평신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공식적인 이해를 제공했던 가톨릭 교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데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는 모든 것이 교회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웠고 사제들이 라틴어를 다루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은 천년 동안 신학을 정의한 많은 교회 자료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이러한 이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신선한 일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마브 윌슨 박사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메시아적 주제, 31번째 세션입니다.